

보도 일시	2022. 12. 15.(목) 12:00	배포 일시	2022. 12. 15.(목) 12:00
담당 부서	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	책임자	과장 강지은 (044-203-2831)
		담당자	사무관 안승연 (044-203-2839)

한국과 태국, '2023~2024 상호방문의 해' 체결로 관광 협력 강화

- 동남아 한국문화(케이컬처) 열기를 관광 수요로 전환 -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와 태국 관광체육부(장관 피팻 랫차깃쁘라칸)는 12월 13일(화),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'2023~2024 한국-태국 상호방문의 해'를 포함한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(MOU)'를 서면으로 체결했다.

문체부는 2023년에 한국과 태국이 수교 65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계기로 동남아 최대 한국방문 시장인 태국('19년 57만 명)과 함께 2023년~2024년을 '상호방문의 해'로 지정하고자 지난 5월부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해 왔다. 그리고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관광객에 대한 더욱 공세적인 유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양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2년간 ▲ '상호방문의 해' 계기 대형 관광 교류 행사 개최, ▲ 온·오프라인 매체 활용 양국 관광 목적지 홍보, ▲ 관광 분야 종사자 역량 강화, ▲ 관광 연계 문화·예술·체육 행사 장려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.

12. 15. 태국 현지에서 '한국 관광의 밤' 개최

그 첫 번째 결실로, 12월 15일(목) 태국 현지에서는 '한국 관광의 밤(Korea Night)'이 열린다. 양국 언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등 13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에이핑크(Apink) 정은지 씨를 '한-태 상호방문의 해'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한국 관광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.

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“태국은 동남아 한류 전진기지로 불릴 만큼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 나라이다.”라며, “동남아 국가와는 최초로 추진한 ‘2023~2024 한-태 상호방문의 해’ 지정을 계기로 관광과 한국문화(케이컬처)의 매력적인 융합을 통해 한국문화(케이컬처)의 본국인 한국이 국제관광수요를 조기에 선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